

여름방학의 效率的 活用

金 永 勳
(延世大 行政學科)

大學에서의 放學은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貴重한 기간이지만 유독 여름 방학을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는 것은, 大學의 授業日數가 조정됨에 따라 연장된 여름방학의 活用이 大學教育의 正常的인 持續이라는 차원에서 再照明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 主題의 目的과 範圍

여름방학을 어떻게 效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는 비단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한 학기 동안의 정규수업을 마치고 휴식과 재창조의 능력배양의 시기로 맞는 방학은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귀중한 기간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유독 이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대학의 授業日數가 조정된 결과로 연장된 여름방학의 활용이 대학교육의 정상적인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再照明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 기간의 長·短의 문제는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생산적일 수도, 또한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활용의 목표와 주체별 계획 및 실천의 면에서 당초의 의도와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학활용의 動機인 그 이념적 가치의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 활용주체로서의 학교당국(교수

도 포함하여), 학생, 그리고 사회의 산자로 구분되는 構造設定이 문제 제기의 시발이 된다.

방학 활용에 대한 이들의 견해와 입장은 어디까지나 대학문화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한다는 측면과 이는 교육적인 가치와 방법의 증진과의 관계, 통상학기와의 유기적인 연관관계, 생활 및 학습 능력 향상과의 관계 등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내용에 따라 이미 널리 실시되어 왔거나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시 정리함으로써 반성과 발전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의도가 있다.

II. 活用的 實態

1984학년도에 여름방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類型別 구분은 대단히 다양하다. 새로운 시도와 관계적인 반복의 조화

안에서 제시된 나름대로의 계획에는 각 대학의 창의적인 노력의 자취를 볼 수가 있다.

1. 季節制 授業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업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계절제 수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계절제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이러한 제도운영의 경험이 많은 사례도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전국의 99개 대학 중에서 62개교(63%)가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42개 종합대학 중에서는 31개교(74%)가, 그리고 57개 단과대학 중에서는 31개교(54%)가 계절제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이 제도의 定着化에 노력하고 있다.

계절제 수업의 실시교에서는 開講科目으로 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 등 그 범위와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실제로 등록을 마친 다음의 실제 실시과목의 종류와 수는 당초의 개설 예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는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財政的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과목은 대개가 敎養 위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소의 기초과목, 교직과목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또한 당초 어떠한 과목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수강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개설과목을 확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계절제 수업 실시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수강료의 책정이다. 법정 수업일수를 마쳐야 하는 기간 설정은 통상학기보다 짧지만(4주~6주) 이 기간의 수강료가 고액이라는 인상을 주는 예도 없지 않으나 이 문제는 대체로 무리 없이 이해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강대상도 처음에는 早期卒業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졸업정원제와 연관될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희망 학생에게 수강 門戶가 개방됨에 따라 대상 선정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또한 계절제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소요 학점으로만 인정될 뿐, 통상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2. 학생의 能力 發展을 위한 활용과 社會奉仕

정규 수업 이외의 학생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위한 활용도 그 종류와 수에 있어 적지 않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개설된 것으로는 어학이나 컴퓨터 등의 각종 특강 및 이와 연관된 공개강좌, 행정관서나 산업체 등을 통한 현장실습과 교육, 학생 간부수련, 해외연수, 그리고 농촌봉사 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전국적으로 87개교(88%)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대학의 경우에는 42개교 전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취미나 오락활동의 범위를 넘어 앞으로의 職業選擇과 연관되는 학습을 돕고 또한 산업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비하려는 體驗的 意識의 발로로 나타나고 있을 때, 그 효과는 크다고 믿는다.

이 밖에 학교당국이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또는 연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노인이나 여성, 또는 특정 직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및 기술교육과 재훈련, 종교지도자들에게 대한 세미나, 의료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와 학교와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協同 프로그램은 단순한 봉사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지식의 공유와 그 발전, 사회개발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도 충분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전체 대학의 71%인 70개교가 이에 참가하고 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활동에 모두, 혹은 두 개나 하나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다.

Ⅲ. 活用方案의 整備

여름방학 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활동 종목과도 무관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개별 프로그램의 의의와 실시의 농도와도 관련된다. 이는 모든 유형마다 공통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험과 추정의 범위 안에서 개관하기로 한다.

1. 知識指向의 프로그램

(1) 季節制 授業의 운영 : 學點交換制의 고려
계절제 수업의 운영은 무엇보다도 그 教育的 性格의 규명이 중요하다. 조기 졸업을 위한 것

인가, 성적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가, 조기졸업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 교과목 사전 수강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 개별 목표가 아니라 通常學期의 교육과 연결되는 綜合的인 성격의 것이라면 학생의 수강을 위하여 통상학기의 개설체제와 유사한 교과목이 폭 넓게 개설 되어야지 단순한 교양이나 어학중심의 편제로는 소기의 목적달성은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통상학기 개설 교과목의 축소형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의 취득학점 제한(6학점)도 대학의 실정과 수강생의 선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취득학점의 처리방법은 진출한 절차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피하겠으나 이러한 제약이 반드시 옳은가에 대하여도 앞으로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정제 수업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대학간의 學點交換制度이다. 학점교환제라는 일정한 수준의 여러 대학 상호간에 특정대학 학생이 일정한 한계 안에서 타대학의 강의를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을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수강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즉 유능한 교수진의 상호 활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의 상호 응통을 기할 수 있어 능력 있는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부분적이긴 하나 자 대학간의 동일 계열의 동일 과목 개설을 조절함으로써 인건비나 실험실습비의 지출을 절감하고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제정제 수업에 있어서는 지방학생의 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크다고 사료된다. 특히 통상학기에서는 지명 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적 이득도 크다. 따라서 학문의 開放과 교육기관의 相互協同의 증진으로 대학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교육방법을 완화하여 활기 있는 교육풍토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서로 다른 대학간의 교육적 자극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아울러 강의의 충실성도 기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는 1972년도부터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간에 大學院教育에 이 제도

를 적용,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국어국문학과, 경제학과, 생물학과 등으로 그 적용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개설학과와 과목, 수강생의 수는 크게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지난 12년간에 이 제도에 참여한 3개 대학원의 연학과수는 534학과, 연과목수 1,044과목, 강의 담당교수는 1,040명에 이르렀으며 수강생은 9,758명으로써 한 대학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人的 資源의 상호 활용의 효과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에는 몇 가지 制約이 따른다. 첫째는 이른바 명문 대학으로의 학생 集中現象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인 양면효과를 갖는다. 결국 자유경쟁 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통제와 보호에 익숙한 한국적 대학교육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발도 드실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는 개설과목이나 학점, 평가방법, 담당교수 등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전기 3개 대학의 경우처럼 학교의 교육이념이나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때에 성공의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코 단순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한편 여름의 제정제 수업의 운영이 대체로 내국인 학생들을 위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제 國際化時代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외국인 학생이나 해외 교포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그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접하여 국내 학생과의 활발한 교류를 시도함으로써 부차적인 효과도 아울러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도운영의 경험을 갖는 대학은 그 운영의 방안을 상호 응통할 때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2) 教授를 위한 行務

단축된 학기에 쫓기는 교수들의 학술 교류활동은 통상학기 내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므로 여름방학을 이용한 學術行務는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으나 긴 기간 활용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敎養·再創造指向의 프로그램 : 學生의 修鍊

(1) 特講教育

여름방학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중 정상 강의 이외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自發性을 계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안일 것이다. 특강에는 어학, 컴퓨터 교육 등이 주종을 이룰 것이며 이는 시대적 요청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더욱더 적극화되어야 할 것이다.

(2) 生活趣味 및 敎養

정신생활의 풍요를 기하기 위하여는 통상학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교양 프로그램을 개인적인 취미에 따라 주로 학생들이 서클을 중심으로 떠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른바 이념서클의 운동 때문에 이 분야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학교 당국도 이에 많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3) 思想 및 理念 批判敎育

지도급 학생이나 일반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 및 이념 비판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상의 오류나 공백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主題別, 分野別 지도교수와 의 계획적인 연계하에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奉仕指向的 프로그램

(1) 社會的 延長敎育

사회봉사 활동은 학교당국이 단독으로, 또는 학생의 협력을 얻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그 종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하며 내용도 극히 실용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참여 대상의 선정과 봉사와 강좌에 관련된 대학의 품위 유지 등을 고려할 때에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夏季奉仕活動

여름방학을 이용한 대학생의 하계봉사 활동은 오랜 전통을 지니며 그 내용과 형식도 풍부하다. 따라서 이념적인 측면이나 평가를 통한 자체반성도 활발하다. 이러한 봉사활동에는 언제나 그 대상이 농·어촌 지역으로서 의료시혜, 노동력 제공, 각종 기술지도, 생활개선, 문화 및 교육행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봉사자와 피봉사자와의 일체감의 조성 및 위화감의 배제에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한 특정 학생들의 自體訓練의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職業現場訓練, 勤勞指向的 프로그램 : 產學 協同의 活性化

(1) 現場訪問 및 敎育

經驗主義的인 교육의 효과는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고 사회현상의 理解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권장되어 왔으나 이러한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여름방학은 사회일선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참여관찰과 체험을 통하여 이행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2) 勤勞學生의 雇用

근로학생을 여름방학 동안에 고용하여 보수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근로정신을 함양하는 사회적 노력은 학생 자신은 물론, 특히 산업체의 적극적인 필요와 기회 제공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하여 사회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 이르기 위하여는 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誘引體制가 적극화되어야 할 것이다.

IV. 맺는 말

대학생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 척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젊은이로서의 대학생의 본질과 그 문제성은 시대의 동향을 민감하게 간취하고 사회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반응함으로써 사회의 모습을 선명하게 나타내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젊은이다움의 표상인 동시에 그들의 처지가 의존과 자립이라는 모순된 상황에서 나오는 ambivalence를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젊은이의 모순 많은 성격은 때로는 상충하는 사회적 가치가 그들 안에 접약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가 때로는 젊은 대학생들의 자립 욕구를 소외, 억압할 때에 그들의 저항적 형태가 두드러진다. 오늘날의 젊은이가 대중 소비문화의 물결 속에 휘말려 늪을 지향적으로 기울며 까닭 없는 반항을 시도할 때 이를 생산적인 문화로 짚어지는 봉사행, 혹은 업무형의 대학생상으로 전환시키는 훈육이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는 있다.

따라서 통상학기의 敎育的 目標은 물론이어나와 긴 여름방학 동안에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체계의 붕괴 때문에 세대의 단절이나 identity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갈등현상을 극복하는 하나의 건설적인 準據로서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성인문화의 하나의 下位文化로서의 그들의 생활양식의 쇠퇴와 목표의식을 분명히 갖추려면 현대사회의 테크놀로지적 합리성이나 이른바 과잉사회의 병리를 극복하고 또한 고도 산업사회가 낳은 물질적 번영의 결과인 非人間性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배양의 교육 프로

그램의 산출, 그리고 목표 없는 자유만을 추구하지 않는 대학생, 결핍과 부자유를 모르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이 자칫 빠지기 쉬운 反知性主義的인 몸부림에서 진정한 자유, 주체성, 자기실현의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여름방학의 모든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단조롭고,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

* 이 글은 지난 全國大學 敎務處(課)長 協議會 회의(84. 7. 18~7. 20)에서 발표된 논문이다.